

참다윗으로서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6/20 월

삼상 21:4, 6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떡은 가진 것이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여자들을 멀리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 왜냐하면 임재의 떡 외에는 다른 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떡은 마침 따뜻한 떡으로 바꾸려고 여호와 앞에서 가지고 나온 떡이었다.

마 1:6

6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 12:1-4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까?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다윗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임재의 떡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삼상 2:35-36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36 그리고 너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은 한 닢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와서 절하며 말하기를 ‘제발 나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 주셔서 떡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

눅 19:36-38

36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걸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 왔던 모든 능력의 일들을 두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38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여라!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6/21 화

시 22:1

1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저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저의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히 5:7

7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시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시 22:9-11

9 그러나 주님은 저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10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주님께 맡겨졌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1 환난이 다가오나 도와줄 이 없으니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시 109:3-5

3 그들은 제게 증오의 말을 퍼붓고 이유 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4 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저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5 그들은 제게 선을 악으로 갚고 제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습니다.

마 27:39-44

39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40 “성전을 헐고 삼 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라고 하였다.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42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장 구출하시겠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였으니까.”라고 하자,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독하였다.

눅 23:33-35

33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범죄자들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걸옷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35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관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이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하지!”

6/22 수

시 110:1-3, 7

1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7 그분은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시므로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라.

삼하 23:1-5

1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선포이며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의 선포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이며 이스라엘에서 찬송시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이다.
2 여호와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는
4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해 돋을 때의 아침 햇빛 같고 비 갠 뒤의 눈부신 햇살로 땅에 연한 풀을 돋우는 밝은 빛 같다.’
5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갈망을 참으로 그분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눅 1:68-70, 76-79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님의 종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70 주님께서 옛적부터 주님의 거룩한 신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6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신언자라 불릴 것이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77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6/23 목

겔 34:23-24

23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24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렘 30:9

9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사 32:1-2

1 참으로 한 왕께서 의에 따라 통치하시고 통치자들이 정의에 따라 다스리리라.

2 한 사람이 바람 피하는 곳과 폭풍우 가리는 곳 같고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눅 1:31-33

31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32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33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요 10:11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호 3:5

5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며, 마지막 날들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올 것이다.

6/24 금

삼하 7:12-13, 16

12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16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토록 굳건해지며, 네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 9:6-7

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7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분의 왕국 전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그분의 화평도 끝이 없으니 이제부터 영원히 정의와 의로 왕국을 굳게 세우시며 불드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고전 12:12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6/25 토

암 9:11-12

11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무너진 곳에 벽을 쌓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옛날처럼 건축하리라.

12 그리하여 그들이 에돔의 남은 이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을 행하는 여호와의 선포이다.

계 12:10-12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과, 즐거워하여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심한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시 2:1-2, 6-9

1 어찌하여 민족들이 소동하며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땅의 왕들이 나서고 통치자들이 서로 모의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을 대적하며

6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시리라.

7 내가 여호와와 칙령을 선포하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8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유업으로 주고 땅의 끝까지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

9 너는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깨뜨리리라.”

6/26 주일

행 2:22-25, 29-36

22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들과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23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25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9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0 다윗은 신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1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디다.’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35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2022. 6. 20 ~ 2022. 6. 23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4, 38, 23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10, 38 장

호세아-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아모스(3);

The Church in New York City

www.churchinnyc.org